

농업관측정보

축산관측

□ 한우 : 9월 한우 도매가격 일시적 강세, 10월 이후 약세 전망

- ▶ 암소 감축과 도축 증가로 12월 한육우 마리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
 - 송아지 생산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 304만 마리보다 다소 증가한 306만 마리 전망
 - 송아지 생산 마리수 증가분보다 암소 감축 등으로 도축 마리수 증가분이 커 12월 마리수는 전년 295만마리보다 1~2% 감소한 290~293만 마리 전망

- ▶ 도축 마리수 증가로 9~11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증가
 - 암소 감축 정도에 따라 9~11월 도축 마리수는 전년(21만 2천 마리)보다 19.3~28.3% 증가한 25만 2천~27만 2천 마리로 전망
 - 수입육 재고 증가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7.1% 감소한 6만 톤으로 전망

- ▶ 할인행사, 추석 등으로 9월 한우 1등급 도매 가격 일시적 강세, 10월 이후 약세 전망
 - 할인행사와 추석 수요 증가로 9월 큰 소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13,692원보다 상승한 kg당 14,000~15,000원(생체 503~531만 원, 1등급 600kg기준) 전망
 - 암소 감축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10~11월 큰 소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13,500원보다 하락한 kg당 12,500~13,500원(449~485만 원) 전망

□ 양돈 : 9월 지육가격은 3,700~3,900원/kg (탕박 기준) 전망

- ▶ 9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970만 마리 내외 전망
 - 여름철 생산성 하락으로 9월 사육 마리수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감소한 970만 마리 내외 전망
 - 모든 생산성 하락과 기대 수익 저하로 12월 사육 마리수 960~980만 마리 전망

- ▶ 금년 9월~내년 2월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3% 많을 전망
 - 금년 9월~내년 2월 도축 마리수 전년 동기 간보다 22% 많을 전망
 -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3%, 2010년 동기보다 11% 증가 전망
 -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8% 내외 감소 전망
 - 수입량 감소하지만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6% 증가 전망

- ▶ 9월 지육가격은 3,700~3,900원/kg, 10~12월 가격은 4,000원/kg 이하 전망
 - 공급량 증가, 출하품질 저하로 9월 지육가격은 전월 추정치보다 낮은 3,700~3,900원/kg(탕박) 전망
 - 4분기 지육가격은 4,000원/kg 이하 전망, 내년 1~2월 가격은 4,000원 내외에서 형성될 전망

□ 육계 : 9월 육계 산지가격 1,500~1,700원/kg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▶ 9월 육계 사육 마리수 전년보다 2.3% 증가한 7,269만 마리 전망
 - 7월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2.0% 증가한 665만 마리 추정
 - 폭염피해에도 불구하고 종계 생산성 전년보다 향상

• 8월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.1% 증가한 6,267만 마리 전망

▶ 9월 닭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15.1% 증가 전망

-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, 출하일령 단축으로 9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보다 4.7% 증가 전망
- 수입업체 증가로 9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 대비 129.1% 증가한 10,875톤 전망
- 8월 12일 기준 닭고기 비축물량은 전년 대비 2.6% 증가(전월 대비 5.2% 증가)

▶ 9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경기침체와 가정내 닭고기 구매의향 감소로 닭고기 수요 감소 전망
-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, 9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,500~1,700원/kg 전망

▶ 10~11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내년 2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8~16% 높은 수준
- 10월 육계 산지가격은 1,500~1,700원/kg, 11월은 1,400~1,600원/kg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□ 오리 : 9~11월 오리 산지가격 6,500~7,000원/3kg으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

▶ 적극적인 종오리 도태 추진으로 6월 종오리 사육 마리수 전년 대비 감소

- 6월 종오리 사육 마리 수는 전년 대비 32.5% 감소한 114만 마리, 오리 총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7.2% 감소한 1,260만 마리
- 종오리 사육 마리수 감소로 9~11월 오리고기 공급 감소 전망

▶ 7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대비 20.4% 감소

- 사육 마리수 감소로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

전년보다 20.4% 감소한 5만 4천톤

-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18.4% 감소한 3,994 톤

▶ 9~11월 오리고기 총 공급량 9.2% 감소 전망

- 도압마리수 감소로 9~11월 오리고기 총공급량은 전년보다 9.2% 감소한 3만 6천 톤 전망

▶ 9~11월 오리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

- 공급량 감소로 9~11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8.5~16.8% 상승한 6,500~7,000원/3kg 전망
- 냉동 재고물량이 일부 소진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업계의 지속적인 종오리 물량 관리가 필요

과일관측

□ 태풍에도 추석 성수기 과일 공급은 안정화될 전망

▶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25% 내외 감소할 듯

- 배 생산량은 22만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
- 사과 생산량은 태풍 피해 있으나, 작년과 비슷한 38만톤 수준 전망
- 포도·복숭아·감귤·단감 생산량에 대한 태풍 피해는 제한적일 듯

▶ 추석이 늦어 성수기 출하는 작년보다 사과가 3~8%, 배는 1~5% 많을 듯

- 사과 출하량은 9월 상순에 적겠으나 추석 성수기에 증가
- 포도·복숭아·감귤·단감의 9월 출하는 작년보다 증가할 듯
- 9월 바나나, 파인애플, 키위, 오렌지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

농업관측정보

- ▶ 태풍영향으로 사과와 배 비상품률 증가할 듯
 - 낙과 및 상처과 다발생으로 사과와 배의 비상품률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
 - 배의 흑성병, 적성병 등 병해 발생률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
 - 포도는 최근 강우로 열과 현상 심해질 듯
 - 노지감귤과 단감 품질은 작년보다 양호할 듯

채소관측

□ 엽근채소

- ▶ 가격 전망 - 엽근채소 9월 가격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
 - 배추 : 9월 출하량 작년보다 15% 감소하여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전망
 - 무 : 9월 출하량 작년보다 2% 증가하여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고 평년보다는 높을 전망
 - 당근 : 9월 출하량 작년보다 26% 증가하여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평년 수준 전망
 - 양배추 : 9월 출하량 작년보다 3% 증가하여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작년수준 전망
 - 감자 : 9월 출하량 작년보다 13% 증가하여 가격은 작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을 전망
- ▶ 재배면적 전망 - 엽근채소 겨울작형 재배의향 지난달 조사치보다 큰 폭 증가 추세
 -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정식기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 일부지역의 식부 지연과 육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지난달 조사치와 비슷한 수준
 -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배추와 양배추에서 겨울배추로 품목 전환 의향 증가로 평년대비 6% 감소하나 지난달 조사치(15% 감소)보다는 크게 증가
 -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파종기 지속된 강우

- 로 파종이 지연되고 일부 서해안 지역의 태풍 피해로 지난달 조사치인 평년대비 5% 감소보다 감소폭 확대될 전망
- 월동무 재배의향면적은 제주도 겨울당근의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커 이 중 일부 면적이 월동무로 대체되어 평년보다 25% 이상 증가 전망

□ 양념채소

- ▶ 가격 전망 - 9월 양념채소 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
 - 건고추 :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,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, 금년산 생산량은 작년보다 많을 전망. 따라서 화건 9월 가격은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
 - 마늘 : 금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으나, 수입 감소로 9월 공급량은 전년 동월보다 6% 적을 전망. 따라서 9월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높으나,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
 - 양파 : 금년산 양파 재고량이 전년보다 26% 적어, 9~10월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높으나, 할당관세를 통한 민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
 - 대파 : 9월의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보다 19% 적어,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높으나, 수입 증가로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
- ▶ 2013년산 생산 전망 - 내년산 마늘·양파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1~4% 감소 전망
 - 마늘·양파 : 마늘 농가수취가격이 전년보다 낮아,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1%, 양파는 수입에 따른 가격 불안정으로 4% 감소 전망
 - 대파 : 12월~내년 4월에 출하되는 겨울대파 출하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6% 감소하나, 내년

3~6월에 출하되는 월동대과는 3% 증가 전망

과채관측

□ 태풍·강우의 영향으로 출하량 감소, 중순부터 완만한 회복 예상

▶ 8월 상순의 고온에 이은 태풍·강우의 영향으로 오이·호박 생산 차질

- 호남과 충청 지역 비닐하우스 손실로 재배면적 감소, 정식시기 지연
- 강원지역은 고온과 강우의 영향으로 출하 조기 종료되는 면적 확대
- 강원지역 노지재배 비중이 큰 백다다기, 애호박의 생산 차질 상대적으로 커

▶ 9월 상순 가격 변동 크나, 중순 이후 상순 대비 약보합 예상

- 8월 하순 태풍·강우의 영향으로 상순 일별 반입량과 가격 변동 클 듯
- 중순 이후 출하량 증가하나, 추석 등 수요 증가로 가격은 소폭 하락할 듯
- 작년대비 출하량은 백다다기 19%, 애호박 26%, 수박 5%, 일반풋고추 2% 감소 예상
- 출하면적이 확대된 토마토, 청양풋고추 출하량은 작년대비 1~5% 증가
- 수박 출하량은 전월대비 크게 줄고, 참외는 추석 전후로 출하 종료될 듯

▶ 태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손상으로 정식시기 다소 지연될 듯

- 취청오이 겨울철 주산지인 전남의 하우스 손상으로 정식의향 크게 감소
- 백다다기, 애호박, 수박의 9월 정식의향은 작년보다 감소하나 10월에는 증가
- 토마토 정식의향은 지속적으로 증가
- 2013년산 딸기 정식의향은 작년보다 1% 증가, 설향 비중 4%p 증가

곡물관측

□ 기상 시나리오별 추정 단수 적용결과, 2012년 쌀 생산량 416만~437만 톤 전망

▶ 금년 쌀 단수 490~515kg/10a 추정(8월 20일 작황기준)

- 8월 중순까지의 기상청 관측 자료와 예보를 바탕으로 927개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, 최소 단수는 490kg/10a, 최대 단수는 515kg/10a로 추정
- 추정 단수를 2012년 재배면적 확정치 84만9천ha에 적용하면 2012년산 쌀 생산량은 416만 1천 톤~437만 3천 톤 전망
- 그러나 등숙기인 8월 하순부터 9월까지의 기상이 쌀 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와 대형 태풍 볼라벤 복상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경우 현재 추정된 단수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

▶ 2012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9.5~69.7kg 전망

- 2011년 11월~2012년 4월까지 1인당 1일 쌀 평균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2.4% 감소한 193.9g이며, 2012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9.5~69.7kg으로 추정

▶ 산지유통업체 재고량 증가로 산지 쌀 가격 약보합세 지속

- 농협과 민간RPC의 쌀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 7월말 현재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 동기대비 37.4% 증가한 41만9천톤
- 2012년 8월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평균가격 보다 2.4% 하락한 80kg당 162,044원으로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를 지속 ㉞